

중국, 2005년도 중앙 1호 문건 발표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2005년 1월 말 농촌문제에 대한 1호 문건 ‘중앙 국무원의 농업종합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농촌업무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약간의 정책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進一步加強農村工作提高農業綜合生產能力若干政策的意見)을 발표하였다. 1호 문건은 2005년도 중국의 최중요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과 의의를 살펴본다.

문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2005년도 농업 및 농촌의 총체적 목표는 당(黨)의 16대와 16기 3중, 4중 전회 정신에 입각하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발전계획을 견지함과 동시에 농촌지원정책을 완비하고 강화하는데 있다. 또한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농업, 농촌경제의 구조를 조정하여 농촌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식량의 안정적인 증산,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실현하여 농촌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

이 문건은 전체 27조(條), 9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발전 지원정책의 강화에 의한 농민의 적극성 유도
- (2) 가장 엄격한 경지보전제도의 실시를 통한 농경지의 질적 수준 제고
- (3) 농업수리(水利) 및 생태환경 건설 강화와 농업재해 방어능력 향상
- (4) 농업과학기술 혁신의 가속화
- (5) 농촌의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여 농업 발전 환경 개선
- (6) 농업, 농촌의 경제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에 의한 농업경쟁력 제고

- (7) 농촌투융자체제 개혁 및 완비를 통한 농업의 투자메커니즘 확립
- (8) 농촌노동자의 자질개선을 통한 농민과 농촌사회 전반적인 발전 촉진
- (9) 당(黨)의 농촌업무에 대한 지도의 개선 및 강화

이 문건은 당 중앙, 국무원이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역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004년도 중국 중앙정부는 일련의 농업정책을 추진한 결과 비교적 양호한 발전을 달성하였다. 식량생산은 주요 전환기를 이루었고, 농민소득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농촌개혁이 가시화되고, 농촌사회 사업도 새로운 진전을 보였다. 이 같은 발전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사회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문건은 또한 농업기초를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업 인프라 건설의 강화와 농업 과학기술의 진보, 농업의 종합생산능력 제고 등을 위한 일련의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고도 긴요한 전략적 임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농업의 종합적 생산능력’은 2005년도 중앙 1호 문건의 핵심어로 자리잡고 있다. 2004년도 중앙 1호 문건이 ‘이(兩) 감면, 삼(三) 보조’를 통한 농민의 세금부담 감면과 소득증대를 이루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2005년도 중앙 1호 문건은 농업의 종합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농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2005년도 중앙 1호 문건은 식량증산과 농민 소득증대는 국가 식량안보, 농업 경쟁력 및 농민의 이익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삼농(三農) 문제의 개선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식량의 안정적인 증산,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우선 농업 종합 생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문건은 특히 강조하고 있다.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자 경로를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통해 수년간 지속되어 온 농업투자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농촌금융 종합개혁 방안을 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현(縣) 지역경제, 특히 농촌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http://www.agrisd.gov.cn>

(이현주 hjlee@krei.re.kr 02-3299-4359 한국농촌경제연구원)